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9 월호

교회설립 30주년



더 욱 장 성 하 는 교 회 가 되 자

충현교회가 금년 9월 첫주일로 만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시간적인 면에서도 우리교회가 장성기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장성한 교회는 어떠한 면모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외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에서든 부흥하는 교회를 묘사할 때 모이는 사람 수가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충현교회가 오천 세대에 일만여 성도의 교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외적 성장에 있어서 공간적 요소 즉 교회의 수용능력이 중요한 성장요소가 된다. 그간 우리교회는 찾아오는 사람을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한 그릇이었다.

이번에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 큰그릇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내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신자나 교회가 이 내적 혹은 질적 성장을 하지 않고는 온전히 장성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내적 성장의 분량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엄밀히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내적 성장을 점검할 수 있다.

·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신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적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 신령한 계산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성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계산방법, 믿음의 사고방식을 체득하여 천국의 사역을 감당한다.

·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기심을 극복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어린 신앙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데 있다. 받는데 관심이 많고 자기 추구하고 자기 과시에 이끌리기 쉽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이타적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며 이웃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겸허하게 봉사하는 종의 심정과 실천을 가진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자체 유지와 자기 과시에 급급한다면 「성숙치 못한 교회 내지 노화되는 교회」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충현교회는 장성할 수록 더욱 이웃과 동족과 세계를 향하여 신령한 관심을 쏟으면서 몸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 섬기는 종으로 매진하여야 한다.

천국일군 양성, 북한 선교,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성전 건축에 계속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을 목표를 삼아 무한히 장성하기를 멈추지 않는 충현교회가 되어야 한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敎
民族福音化
世界宣敎
聖殿建築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9월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8호 통권113호

1983년 9월호 차례

- 권두언/더욱 장성하는 교회가 되자주 간 · 2
- 이달의 말씀/교회의 부흥은.....당회장 · 4
- 교회의립 30주년 기념 특집 6

좌담회/충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참석자 : 김원남 · 이성근 · 장정일 · 최봉호
조현명 · 조선근 · 손동운
사 회 : 김영구

-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김창근 · 13
- 신앙논고/안식일과 주일이양우 · 14
- 이사야 강해⑩/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의 내용김창인 · 20
- 교사일기/신앙변증.....이성은 · 22
- 찬송가 감상/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김창근 · 23
- 신앙수상/나의 여름 휴가정인선 · 24
- 교사보고/이 죄인 받으소서.....김병규 · 26

- 그루터기/악이란19
- 월간충현 정정란19
- 서평/조국아 내 뼈를 묻어다오27
- 여름에 기도27
- 신간안내27
- 선교사 · 선교지28
- 교회소식30
- 이달의 교우동정33
- 이달의 행사34
- 편집후기34



□ 표지해설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직도 공사중인
새성전 모습을
담았다.

교회의 부흥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 오더라』(행 11:21)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건물이 커지는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비로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총현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부흥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두 사도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천명, 오천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이렇게 부흥되어 갈 때에 악마의 꾀박의 몽둥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리하여 성도들이 꾀박을 당하여 혹은 감옥에 갇히고 혹은 잡혀 죽고 혹은 고향을 등지고 국내외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아니고 쇠퇴하고 다 망해 가는구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쫓기기는 했어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매를 맞고 도망을 가는데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지방에도 성

령의 불꽃이 떨어지니 이곳에도 교회요 저곳에도 교회니 열곳 스무곳 교회가 우뚝 우뚝 세워집니다. 본국에서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교회요 유대 사람의 교회뿐 아니라 이방 사람이 믿는 교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교회는 쇠퇴에 떨어진게 아니고 점점 부흥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불의한 세력과 더불어 타협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팔아먹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지되었을런지는 몰라도 내막으로는 썩은 교회가 되고 타지방의 교회들은 이룩할 수 없을 뻔 했는데, 매를 맞고 죽으며 쫓겨 갈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쫓겨 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 교회는 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세력 잡은 자와 타협하는데 있지 않고, 돈 많은 자와 타협하는데 있지 않고, 진리를 지키다가 깨끗한 피를 쏟는데만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장관이 나와서 장관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부자가 많아서 부자의 힘으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신앙을 지킴으로 비로소 부흥이 됩니다.

2.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 곳에 있지 않고, 지식 많은 사람들의 수단에 있지 않고 권세 좋은 자의 백에 있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의 재물에 있지도 않고 다만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너를 붙들고 보호한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식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인간적으로 세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어 주시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원수가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길 잃어 버릴 염려가 없고 하나님이 영육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니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부흥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3. 올바른 교역자(바나바)를 모신데 있습니다

가정의 성공은 가장된 호주의 손에 있고 백성의 평안은 바른 위정자에 달려있고 양의 평안은 올바른 목자의 보호를 받는데 있습니다. 이같이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올바른 교역자를 모시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는 누구였고 어떠한 사람이냐?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교역자는 바나바인데, 그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1)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

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자로서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을 떠나야 착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교만을 떠나 겸손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여 남을 업수이 여기는 자는 가증스러워지지 않게 될 수 없습니다. 또 착하다는 말은 경솔하지 않고 조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덤비지 않고 침착하여 조심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땀과 피를 쏟을 수 있는 희생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목자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인물, 지식, 능력 다 좋으나 희생할 수 있느냐가 첫째 조건입니다.

(2)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분이라도 인간의 실력을 가지고는 악마를 싸워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진짜 교역자가 됩니다. 교회운동은 악마와 싸워 물리치며 양떼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악마를 이기는 데는 성령의 능력 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맡기신 수 많은 양떼를 악마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진 꼴로 키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별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보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보기 싫고, 영혼이 떠난 육신이 보기 싫고, 성령 떠난 목사장로가 큰 걱정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3) 너그러운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음이 바다와 같



김창인 목사

이 넓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포섭합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천국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모여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의인만 모여 죄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죄를 털어놓고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라도 영접합니다.

바나바의 마음은 너그러워 누구라도 영접합니다. 교역자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너그럽지 못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은 후진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만이 후배를 키워줍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열두 사도가 포섭치 못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년 이년 삼년 키워주셨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사울은 바울 사도가 되어 신약 성경 열 네 권을 기록한 대 사도가 되었습니다.

4. 선한 일에 빠짐없이 협력하는데 있습니다

바나바가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또 생깁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흉년을 만나서 가난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구제합시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선한 일에 너도 나도 함께 다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일에 빠지지 않고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은 재미없고 시간이 잘 안가고 돈도 많이 들고 땀이 나고 오해도 받기 쉽습니다. 선한 일 일수록 오해와 방해가 더 많고 원수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성공이요 행복이요 자량이요 면류관입니다.

선한 일 하기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숨쉬나니 믿음이 살았다면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산 사람은 밥을 먹나니 내 영혼이 살았다면 성경을 안 볼 수 없고, 산 사람은 피가 흐르고 활동을 하나니 내 신앙이 살았다면 어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일을 그만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한 일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원컨대 핑계하지 마시고 나 쓸 것 다 쓰고는 선한 일하고 남 줄 것이 꿈에도 없으니, 끊어서 절약하면서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들이 얼마나 더 살런지 알지 못합니다. 북쪽 하늘 밑에 내 백성들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 종교의 자유도 빼앗기고 예배드리는 처소를 다 빼앗긴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팔 이복에 들어가 예배당 짓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빠짐이 없이 협력하여 원컨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일 시 : 1983년 8월16일 오후 7시
장 소 : 월간충현 편집실
참석자 : 김 원남 목사(심방위원장)
장 정일 목사(전도위원장)
이 성근 목사(협동목사)
최 봉호 목사(교육위원장)
조 현명 장로(당회서기, 월간
충현 편집위원)
조 선근 장로(충현세계선교회
실행위원)
손 동운 장로(전도위원회 위원)
사 회 : 김 영구 목사(월간충현주간)

충현의 과거를 들어본다

김영구 : <충현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충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과거의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있는가? 또 장래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충현교회의 입장에서 반성과 격려와 자극을 받고, 좋은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번 좌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현의 과거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충현교회가 처음 설립되던 때의 이야기」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56년도부터 봉사하고 계신 조현명 장로님께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조현명 : 저는 충현교회를 지을 초기부터 있지 않았고 부산에 피난갔다가 56년도에 올라와 을지로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로 온 가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충현교회가 설립된 과거를 살펴보면, 김 창인 목사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셨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피난민이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이 되었고 지금에 새성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습니다.



조현명 장로

우리가 지난 날을 살펴보면 애로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해결되었으며 여러 교회를 보조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1956년 9월 기록을 보면 돈암동에 성암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57년 2월 정릉동에 있는 동암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도를 전후해서 지교회를 돕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영구 : 충현교회가 여러 면에서, 특히 한국교회의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온 대표적인 교회」라는 점에서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근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근 : 앞서 조 현명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더 보태어 말씀드리면, 저는 초창기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환상의 사람과 피난 성도들이었다고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전쟁 때, 김창인 목사님께서 동일교회를 세워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에도 동일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 김목사님이었다고 초창기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현교회를 설립하신 김창인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으시고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을 지키셨으며,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남하하셨습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와 같은 순교의 정신이 김창인 목사님께 있었고, 또 교인들도 김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고 이러한 면에서 한국 초대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이 충현교회에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 : 지난 얘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부흥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이었는데 하는 것을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현교회의 부흥의 원인, 지도자, 신앙의 보수성, 바람직한 목표설정 대략 몇 가지만 제시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동운 장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손동운 : 부흥의 원인 중에 바람직한 목표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라는 목표의 설정은 이미 초창기에 있었던 무언의 설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0주

년에 천국일군 양성이라는 표어 아래 주일학교 교육의 기틀을 잡았고 교회 설립 3년 후인 56년부터 청년회를 선두로해서 성암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이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학생회 순으로 매년 한 군데 이상씩 개척하고 자립시켰으며 60년도에는 하기전도대를 지교회에 파송을 했고 그리고 70인 전도대를 고등부에서, 그리고 노방전도를 매주일 실시함으로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 또 주는 교회로 발전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손동운장로

김영구 : 장로님께서 교육 목회 목표라고 할까, 각 기관이나 전체적으로 잘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혹시 김원남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김원남 :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셔서 만주로 가셨다가 오셨고, 해방 후에는 최훈 목사님 등 재건과 계통의 목사님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일정 말엽에 교역자들이 신사참배에 강요에 의해서든지 스스로 했든지 간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후에, 교인들이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모셔야 되겠나 하는 문제로 갈급해 있었고, 그래서 영력이 강하신 김 목사님을 많은 교인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현교회 부흥의 기틀은 산순교자적 지도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두번째는 말씀을 중시한 교회로서 교인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고 바로 전하고 잘 지켜 주는 지도자의 영향력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충현교회는 말

씀 중심의 교회이며, 흔히 있었던 떠드는 교회도, 신비주의적인 교회도 아니고 조용하고, 엄격하고 예배드릴 때 신자들의 경건한 모습들이 그대로 말씀에 입각한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말씀 중심한 교회, 산순교자의 영력있는 지도에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김영구 : 이번에는 부흥의 원인 중에 이런 면이 더 있었다고 하면 오늘보다 더 부흥했을텐데 하는 점이 있다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성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근 : 김창인 목사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경건성과 또는 가슴아리 병에 늘 시달리셨으니까 천국 문전에 오늘 들어가느냐 내일 들어가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교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정 이후, 해방 혼란기, 6.25 사변을 거치면서 교인들에게 생의 담력용기를 주었으니 그것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물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 창인 목사님의 설교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적인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없었더라면 김창인 목사님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인이 많이 물려 왔었겠는가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아니한 창작적이며 극적이며, 입체적인 표현, 기도같은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찬송같은면서도 설교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았습시다.

생활 적용 면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려운 세상에서 교인들을 바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물려들었기 때문에 부흥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 사업을 개발하는 착상력이라든지 남이 얘기해주는 것을 판단하는 판단력이라든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끌고 나가는 지구력이라든지 누가 반대를 해도 옳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밀고 나아가는 추진력, 이런 것이 충현교회를 부흥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부흥에 앞서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1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샀지만 건축이 되지 않으니까 1975년도 이후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수적인 부흥이 완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라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선근 : 저는 역사의식의 결여를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가 설립되고 이듬해 1월 첫주에 여전도회가 창립되었고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많이 했더라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김 목사님께서 상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근장로

그 다음은 조직력의 약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인 체제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많아 지는데 2·3백명 있을 때는 목회자 한분이 다 돌아 볼 수 있지만 5백명, 6백명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무리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분들의 경우는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조현명 : 아까 조선근 장로님께서 문서정비와 보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판위원회에서 20년사, 25년사를 만들 때에도 곤란 당하는 사람들이 편집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마다 회의록만 산더미처럼 들추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만들자고 당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연보를 만들어서 5년마다 정리해 가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빠진 것을 추가해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얼마나 좋으냐 했는데, 인원이 따르지 않았고, 장로님 가운데도 편집실에 사람을 더 채용한다고 하면 글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될텐데 또 사람을 채용하느냐고 합니다.

이형수 집사님이 계실 때부터 연보를 만들자 했는데 매달 월간 총현 만드는 것이 급하지 연보 만든다고 해서 한 달을 건너 뛸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중대 못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들어온 분도 해 보자고 했으나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도 그렇지만 자기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만 눈이 밝은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를 천국일군 키우자고 하는데 둔것이 천국일군은 교역자만 키우는 일이겠습니까? 천국일군은 십자가 정병이니까 개명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스스로가 자신을 훈련하도록 돕는 자발적인 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을 새롭게 하여 활동할 능력을 양성하며 말씀의 생활화를 가하도록 자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총현의 오늘을 말한다

김영구 : 고맙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총현교회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현재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시로 교회적인 측면, 민족적인 측면, 혹은 세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성전 이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과 위치에서 어떠한 비전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한국 교회에 여러 큰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보수교회로서 전국에서 큰 교회로서의 위치가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정일 : 밖에서 요즈음 어떤 면에서 엄청난 일이 있으면 「총현교회도」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그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2천만 성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지 북한선교를 해야 된다는지 하는 것은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상당히 강하고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뜨거운 민족애를 땅에서 강조하는 것도 총현교회가 민족 앞에서의 사명이 대단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민족복음화 측면에서 총현교회가 받은 사명이 대단히 크고 성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광역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에 투자하는 재정보다도 민족복음화나 세계선교나 다른 곳에 더 투자하는 것은 바로 민족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복음화 차원에서 전도위원회의 외지 분과는 성장해서 총현세계선교회로 또 내지분과가 북한선교분과로 성장을 했다고 보아야 하겠고, 크게 활동하기 위해

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5대 목표 중에 천국일군양성, 북한선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서 각 기구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구 : 이번에는 「천국일군 양성」이라는 중요한 교육 사업을 앞에 놓고 수고하시는 최봉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봉호 :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천국일군을 키우자 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선포하신 뒤에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여 한국에서 어느 교회도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에 있어서는 모델적인 교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총현교회의 교육형편을 볼 때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를 해 왔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다면 한이 없겠지만,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이념 가운데, 온 교인들이 천국일군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학습문답이나 세례문답을 해보면,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각 교육 부서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빈번한 지도자들의 교체로 인해서, 교육의 연결성이 되지 않고, 거기다가 뚜렷한 교육 교재 내용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침체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구 : 김원남 목사님께서 심방위원회 중책을 맡으셔서 수고하시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남 : 일정 말엽에 모교파가 천리교식으로 복과 박수를 치면서 열심과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사경회를 하는데 수천리길을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자 장로교 교인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순교에 앞장 섰는데 어느 교파는 목사님부터 '교인들이 신사참배하면 죄짓게 하는 것이니까 안된다'고 물을 담아 버렸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활화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구역 운영은 구역 요원들이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키우는데 있고, 그래서 모든 교역자는 은혜충만한 교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지구를 10지구로 나누는 것은 교역자



김원남 목사

들이 기도하는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심방하면, 그 심방한 가정의 성도들이 「아멘」

하면 그대로 복이 임할 것 같은 심방이 되도록, 교역자들이 스스로 자세를 바로하면,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동운 : 총현교회의 현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중에 급성장 했으나, 총현교회가 시공간의 제약으로 성장이 정체 내지는 둔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으나 질적으로는 만족할 만큼은 못되지만 청년기답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현의 현 위치를 집약한다면 우리의 5대 목표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교회적인 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천국일군을 대내외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주님의 지상명령과 민족 분단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껴서 민족복음화와 북한선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서 세계선교를 통해 세계 속의 총현교회의 새 면모를 보여 줄 새성전의 임당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교회의 표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성전의 건축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이전에 아울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전 교인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현의 내일을 위하여

김영구 : 총현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 발전했는데 앞으로도 대교회로써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와 반대로 대교회가 가지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외적인 성장에 상응하여서 내적이고 영적인 성숙이 약화되기 쉽고, 자체의식 즉 유기적인 연합에 많은 약점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강남구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한 지역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서울과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를 바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아울러 대비책, 그 밖에 총현교회의 5대 목표의 관점에서 어떻게 앞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비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일 : 민족복음화 차원을 앞으로 세계선교와 병행해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은 군단위로 집중적으로 복음화시키는 전략을 세워서 큰 교회들이 한 군이나 면단위를 맡으면 이것이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자녀 교육의 문제이며, 둘째, 예배당 시설의 빈약이며, 셋째, 교역자들의 섭외비 내지는 판공비



장정일 목사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현지의 어려운 교육은 자녀들에게 무능한 부모로 보일 수도 있고, 도회지 유학은 배의 재정이 듭니다. 또 새마을 회관 보다 못한 교회이면 지역에서 관심을 받으며, 또 지역의 집회(운동회 등)에 아무런 금전적 지원이 없으면 냉대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에 대해서도 천 달러 이천 달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하듯이, 시골 오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하는 교역자를 민족복음화 차원으로 강력히 지원하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한 두 사람의 선교사 파송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향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단위별로 복음화를 시키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호 : 우리나라는 지금 86년·88년에 대한 비전을 쫓아 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새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여태까지 압축되었던 것을 팽

창시키면서 한 걸음 더 다른 차원에서 발돋움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적인 흐름은 비대해지고 교회들에 대해서 또 황금어장인 교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맘모스적인 큰 교회를 채운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채워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은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나, 그 한 사람이 이민을 갔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현신된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또 현재 자라나고 있는 영혼들이 천국일꾼들로서 성장해서 잘 지어 놓은 새성전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현재의 선교적인 차원만이 아



최봉호 목사

니고, 몇십년, 몇백년을 내다보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말씀 중심으로 확고하게 계승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의 심

각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교회들이 비대해 갈수록, 교육이 바로 앞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이런 때일수록, 앞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다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씀으로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본 일이 없는 가운데서 성장 한다면 세속적인 문화나 문명의 현혹을 당했을 때 쉽게 넘어지거나 타협해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학생들에게 교회가 연결된다면 순수한 말씀주의적 현신보다는 알락하고 이중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함께 걸치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급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지는 교육이 미래를 내어다 보는, 적어도 몇 십년 몇 백년을 내어다 보는 교육으로써, 참 신앙 자체를 완전히 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당회장 목사님과 같이 「일사

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에 젖어 살 수 있도록,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관을 세워 놓았다는 자체만으로 교육을 충실히 잘한다고 생각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약화되었던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충현교회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향해서 순간적인 면만이 아니라 후세대를 계승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교육이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손돈운 : 내일의 진단을 민족복음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학원 전도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내일의 역군의 요람인 학원 전도가 우리에게는 불모지와 같은 현상입니다.

둘째로 군전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군승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가용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군목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걸어서 전도 활동을 해야 하니, 장기 복무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군정의 참모진은 모두 군승이 장악하게 된다는 것은 실로 경악한 일입니다. 60만 대군의 군복음화로 그들이 제대하면 자기 출신지에 가서 복음의 역군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며 또 군인 사회가 복음을 잘 받아 들일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회 설립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강원도 오지 교회의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병행해서 중소도시, 지역 사회 중심지에 개척하고 집중 지원을 한 후에는 그곳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일과 교역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 드려서 유능한 분을 모셔 들이고 본교회와 교류를 하여 유대를 돈독히 하며 본교회에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신학생들은 Y교회와 같이 반드시 지교회에 가서 2·3년 봉사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일군양성 면에 있어서나 지교회와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이와 같은 의사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선교회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정도입니다마는 반응도 좋고 전망도 아주 밝은 편입니다. 인천을 기점으로 해서 군산 목포 여수 서귀포 마산 부산 포항 강릉 속초등 모든 항구에 연안선교회를 설립해서 우상과 미선이 가득

한 어빈과 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며 나아가서 북한 땅의 항구 도시에도 연안선교회를 설립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전도회에서 분과별로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직업별 취미별 생성전의 지역 사회에 알맞는 소그룹으로 전도 활동을 전개한다면 소그룹이 하나의 작은 전도회가 될 것이며 직장전도회는 연합회의 형태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 전도로 K. B. S TV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상담실을 겸한 상담실을 운영한다면, 대교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선교는 이제부터는 즉흥적인 선교 정책을 탈피해서 그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보다 원대하고 능률적인 선교 정책이 확립되어야 되겠으며 본부와 현지간의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아무리 좋은 선교사 후보자라도 본교회에 오셔서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후에 파송한다는 원칙과 선교지 사정이 어려워도 아무나 보낼 수 없으며 선교지 선정과 선교사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적은 선교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인도같은데 주력을 한다면 공산권 선교와 북한선교에도 큰 힘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인식년 제도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원 학교 설립이나 병원 설립 그리고 장학제도를 개선해서 일반 대학의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양성한다면 사회 각 분야에 천국일군을 심는 것이며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제활동을 확대해서 본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불신 가정에도 혜택이 주어진다던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성근 : 충현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조직이 모자이크식으로 헬백이 통하지 않는 형태에서 유기적인 조직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겸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민족에게 교회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사회에서 교인답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교인들로 성장시켰느냐 하는 반성을 교회가 해야 되겠고, 충현교회의 세계적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를 말고 한국이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민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민가는 사람

을 다 선교사 노릇하라고 하기 전에 이민가서 교인답게 봉사할 수 있는 교인으로 성장시켜 보내면, 그곳 현지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겸하여 선교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특별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사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기본 사업은 예배입니다.



이성근 목사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교육 부서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전도 부서에서는 영혼 구원하는 문제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권찰회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기본 사업을 이탈하지 않고 더 집중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살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충현교회의 내일의 문제에서 세계선교는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비를 얼마만큼 거두느냐도 큰 문제이지만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선교사를 물색하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민족복음화라는 문제를 놓고 충현교회가 내일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산업사회화 되어가는 한국에서도 직장선교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천국일군을 어떻게 키워야 좋겠는가? 과거에는 신학자를 키우는데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유능한 목회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조현명 장로님 말씀대로 개병운동으로 교인 한사람 한사람을 교인답게 키우는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문제인데, 교회는 구제사업 기관이 아니고, 구령사업 기관입니다.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야 하고, 막연히 구제를 위한 구제는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조선근 : 기록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제작년인가 장로님들이 전국교회 순방을 하면서 충현교회는 충현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 속의 교회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충현교회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교회가 따라오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6월 21일 휘튼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충현교회가 세계에 알려지고, 그래서 세계 속의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에게 지워진 사명감이나 의무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복음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선봉을 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 목사님께서 휘튼대회에 가서 보고한 것 가운데, 선교관이 완성되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훈련시켜 보내고, 큰 사무실도 마련되므로 세계선교를 위한 여러가지 국제세미나라든가 국제회의를 마련하겠다고 하신 것을 보아서, 현재보다 확대된 선교정책을 계속 수행해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의 신앙을 좀 더 승화시키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새성전에 가면 인원도 많아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비례해서 확대시켜 나간다고 할 때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성있는 교회를 주장하고 싶어요. 국내전도나 주일학교 교육, 문서 선교 등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타교회에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성장연구원을 상설기구로써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성장연구원이 있어서 성장세미나를 하고 연구해서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장정일 : 앞으로 전도부에서는 특별히 소그룹을 더 세분화하고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역 10지구로 나누는데 따라서 20개 여전도회로 나누면 임원진도 많아지고, 사업은 그 비중에 따라 유기적으로 두 지구가 함께 감당하도록 하면 부리가 얹고 대신 일군만 많아지니까 회원을 확보하면 되겠고, 남자들은 직장인이 많으니까 계층별 직장별 전도회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서전도 문제는 「월간 충현」 만을 의지하는데 주간 신문 같은 것이 나와서 교회의 각 부서의 활동과 교회 현황 등을 빨리 전달하고, 신앙간증 등

을 실어서 성도들간의 문서교제로 서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이 생기고 교회도 커지는데 이와같은 신문같은 주간지가 생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현명 : 저도 장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보식으로 주간회보를 내면 설교말씀과 좋은 미담, 봉사활동, 간증문도 게재되니까 전도도 되고 기록도 남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문서화 할 것은 문서화해서 확실한 내용을 모든 당회원과 교우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친교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봉사생활을 하며,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사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김영구 : 감사합니다. 거의 끝맺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조선근 :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나서 생긴 결실 중의 하나가 교회 행정을 일원화시키고 부조화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석부목사 제도라든지 혹은

기획조정실 운영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일하는 사람의 주관보다는 합리성있게 타당성있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하고, 전체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융화하지 못할 때에는, 그 후에 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때, 이번의 계기는 교회의 총화를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방침의 일사분란한 빠른 행정처리라든가, 그밖에 보다 유익한 방향제시를 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구 목사

김영구 :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좌담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것 감사합니다.

□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예배위원장 김 창근 목사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복을 받았고 아름다운 새성전을 건축하여 이제 이사하는 복을 받았읍니다.

앞으로 새성전으로 이사한 후에, 예배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더 신령하고 진정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1층에서 드리게 되는데 좌석이 2천석 밖에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4부로 나누어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현재와 거의 같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본당 입당에 앞서 성가대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나이가 많은 분들도 성가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교회도 청년 뿐만아니라 제직 가운데서도 찬양대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6개 성가대가 있는데 새성전으로 이사하게 되면 일

부 성가대를 통합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책으로 관헌악단을 구성해야 하겠는데, 새성전에 입당하면 우리교회 안에 기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우리 성도들이 예배시간의 귀중함을 알고 예배 시간업무에서 부터,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지는 예배로 깊이 인식하고 더욱 경건하게 엄숙하게 마음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요즈음 주일성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흐려져 있는데,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하겠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회생하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전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가정, 직장, 사회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예배화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이 양 우 목사 (전도위원회 교회성장분과 및
매스콤 분과 담당, 초등부지도)

—차례—

I. 서론

II. 본론

(가) 안식일의 유래

- (1) 안식일의 뜻
- (2) 성경적 안식일의 기원
- (3) 안식일의 역사

(나)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

- (1) 예수님과 사도들
- (2) 초대교회 후기의 안식일관
- (3) 종교 개혁자들
- (4) 안식일과 주일의 공통점
- (5)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
- (6)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

(다) 주일성수의 올바른 정신

- (1) 주일성수에 대한 그릇된 주장에 대한 비판
- (2) 주일성수의 올바른 정신

(라) 주일날 금할 일과 주일성수법

- (1) 주일날 금할 일
- (2) 주일성수법

(마) 주일성수의 중요성과 그 축복

- (1) 주일성수의 중요성
- (2) 주일성수의 축복

III. 결론

I 서론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의 한국교회에는 교파분열,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위협, 무교회주의, 통일교와 같은 이단발생 등, 여러가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매스콤들은 한국 기독교의 대해서 여러가지 비판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교회의 헌금사용의 합리화와 대사회적인 봉사를 촉구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국의 허락 없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기도원」들의 실수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흐려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비판 중에는 잘못 와전되었거나 과장된 면도 있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귀담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며, 개선해야 될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선교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질적인 성숙이 미숙한 것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감정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며,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데서 과감히 일어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으며,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처음사랑」(계2:4~5)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갑작스런 새신자의 증가는 신앙훈련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그중에 「주일성수정신」이 매우 약화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충현교회 설립 30주년과 또 새성전 이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충현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세우는 일환책으로 「안식일과 주일」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필자는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으므로, 먼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차이점을 바로 인식시키며, 올바른 주일성수법과 나날이 약화되어 가는 「주일성수」의 중요성과 그 축복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II 본 론

(가) 안식일의 유래

(1) 안식일의 뜻

안식일(Sabbath)은 히브리어로 「샤밭」 즉 “정지” “휴식” “안식”의 뜻이며, 헬라어로「사바톤」 즉 안식일의 뜻이 있다.

히브리인들은 7일마다 쉬는 날로 지키는데 한 주의 7일째 날로서 금요일 일몰에서 시작하여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성수(聖守)하였다.

(2) 성경적 안식일의 기원

①창조의 기념일로 지킨 안식일

안식일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설정하시고 인간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규례이다(창 2:1~3). 그러므로 안식일의 역사는 인간 역사와 함께 시작된 귀한 성일이다.

②만나에 관한 규정

‘안식일’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사용된 예는 「출 16:23」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모으고 준비하는데서 유래되었다(출 16:5~27).

③십계명의 제4계명

십계명중 제4계명 서두에 “안식일을 기억하라”(출 20:8)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안식일이 전에 알려졌지만 잊혀졌거나 등한시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시켜야 할 계명인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3) 안식일의 역사

①모세 율법의 안식일

모세 율법에 있어서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하인, 짐승, 히브리인들, 손님들의 노동을 중지하도록 명령받고(출 20:8~11, 신 5:12~15). 또 만나 모으는 일을 금지당하고, (출 16:27~29) 불피우는 것도 금지하고(출 35:3), 일하는 자에게 사형언도의 예(출 31:14)와 나무하던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예도 있다(민 15:32~36).

그러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저들의 성직 의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고(레 24:8) 특별한 제물을 드리고(민 28:9, 10), 할례의식을 행하였다(레 12:3).

즉 안식일은 노동으로 부터 해방되는 휴식의 날인 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엄숙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었다.

②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에 나타난 안식일

역사서에서는 「열왕기하 4:23」에 처음 언급되어

있으며, 역대기에는 그 날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대한 언급이 많다(대상 9:32, 대하 2:4, 23:4). 또 이사야는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를 비난하고(사 1:12~13),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안식일이 악용되는 것을 책망했다(렘 17:21~22, 겔 22:8).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가 된 원인을 안식일을 성수치 못한 신성모독죄 때문이라고 책망하였다(렘 17:27, 겔 20:23~24).

한편 바벨론 포로기간 중에는 안식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겔 44:24, 45:17, 47:3~4), 또한 포로 후기에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안식일 성수가 더욱 보편화되었다(느 13:15~22).

③신구약 중간기의 안식일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이 있은후 저들의 후계자인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세심한 규정과 법규는 만들어 내었다. 이 규정과 법규는 겹질의 해를 보호하듯이 안식일 정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는데, 농업, 산업, 가사등 39개항 1,500가지의 인위적인 규례를 공식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수많은 규례는 후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너무나 의식적이며 형식적인 잘못된 안식일 성수 규례가 되고 말았다. 이 중 특이한 것을 예로 들면 2,000규빗(약 1km) 이상은 안식일날 걸어갈 수 없다는 규례도 있다.

(나)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

(1) 예수님과 사도들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안식일(토요일)에 회당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후 점차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일이 「주일」(主日)이 기독교 안식일이 되었다.

또한 제7일 안식일 규례는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불탄 후, 기독교 신자에게는 그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말았다.

(2) 초대교회 후기의 안식일관

서기 2~3세기경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같이 히브리 안식일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구속을 줄 수 없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들면 상도 요한와 제자이며 한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2세기 초엽에,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의 질서 속에 자라났지만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새로운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3) 종교개혁자들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개혁한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수많은 성일과 성례를 무너뜨리려는 일념 때문에 「주일성수」를 제4계명에 두기 보다는 교회의 권위에 두었다.

(4) 안식일과 주일의 공통점

① 안식일 성수는 선민 이스라엘의 표징이며(출 3:13, 겔 20:12), 주일성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다(행 20:7, 히 10:25).

②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그 반열에서 끊쳐지리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심이니(출 31:14). 안식일이나 주일은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안식일은 여호와와 날이요(레 23:3, 26:2) 거룩히 구별한 날이니(느 9:14) 이 날은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과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 되어야 마땅하다.

(5)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념일」이며(창 2:1~3, 출20:11)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재창조의 기념일」이요, 「인간 구속의 완성일」이다(행 20:7, 신 5:15참조).

(6)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이유

① 출애굽기 20장11절 말씀에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기록한 모세가 같은 십계명의 요약인 신명기 5장15절에 안식일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자연스럽게 그 의의를 바꾸어 기억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섭리였으며, 이것은 앞으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일인 「주일」로 변경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다.

②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다(마 5:17)

③ 또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져야 한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일 즉 안식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이다(골 2:16~17).

④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날 저녁과 그 다음 주일 즉 주일날(일요일) 두 번씩이나 공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 오시어 심방해 주시며 교제해 주신 것은 주일성수에 대한 깊은 영적 교훈이 있는 줄 생각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주일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사도들과 기독교신자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매주 첫날)에 함께 모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다(요 20:19~29).

여기 요한복음 20장 26절의 「여드레를 지나서」란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의 나이 계산법과 같이 유대인들도 만으로 세지않고 지나간 날자도 함께 계산하는 계산법 때문인 것이다.

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와 함께 매주일 성만찬을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⑥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도록 권하고 있음을 볼 때, 예배와 헌금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려진 것을 볼 수 있다.

⑦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계시를 듣고 본 사건은 주일의 거룩함과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⑧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 즉 주일날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교회생일」이 되는 큰 은총을 주신 것을 볼 때, 주 예수의 부활의 기념일인 「주일」은 하나님이 친히 설정하신 날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⑨ 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막 2:28)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이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다) 주일성수(主日聖守)의 올바른 정신

(1) 주일성수에 대한 그릇된 주장에 대한 비판
최근에 일부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성수와 십계명의 제4계명과는 무관하므로 제4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이 자유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말속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

① 성도가 가진 자유는 말씀을 떠난 자유나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도의 참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② 혹 어떤이는 「로마서 14:5~6」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히 여기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서 14장은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자유나 지나친 「율법주의」(율법과 다름)는 다 피해야 할 것을 주장한 말씀이며 어떤 경우에도든지 극단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날」

과 「저날」의 문제는 주일성수까지 언급한 말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며, 또한 그는 성도의 인생관은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롬 14:8).

③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고(골 2:16~17), 「도덕적 율법」은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연속성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도 살아있는 성경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안식일 계명」중 날짜(토요일)는 의식적 율법이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그 정신은 도덕적, 종교적 율법이라고 생각한다.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창조의 기념일」(주일)을 「창조의 기념일」(안식일) 정신 그대로 지켜야 될 줄 믿는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 밤 죽으셨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와 함께 죽고, 무덤에 묻혀버렸고, 그의 부활과 함께 기독교신자에게는 새로운 날인 주일이 찾아온 것이다.

(2) 주일성수의 올바른 정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초대교회 신자들은 7일의 주간 주기를 신적으로 위임된 하나의 제도로 받아들였으며, 사실 7일간의 시간 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분이었다(창 2:1~3).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일성수의 신학」은 ①말시온적인 이단신학을 경계해야 하겠으며 (말시온주의: 구약적 유산을 전부 부인하며, 구약 성경을 모두 무시하는 초대교회 이단), 또한 유대교적인 극단적 율법주의의 위험도 동시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성수의 올바른 정신」은

①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해방을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주 예수안에서 참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겠다.

②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께 영광돌리는 구별된 성일(聖日)로 지켜야 하겠으며,

③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아울러 육체의 휴식도 누리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④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⑤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위로와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울러 이웃에 봉사하며

전도하는 것이 「주일성수의 올바른 정신」인 줄 확신한다.

(라) 주일날 금할 일과 주일성수법

(1) 주일날 금할 일

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일이므로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에게 영광돌리는 예배에 방해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금해야 함이 마땅한 줄 안다.

①주일은 현세의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휴식해야 한다

모든 생물과 사람의 몸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새힘을 얻는다. 공부도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만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공부해야 우등생이 될 수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어느 탄광에 노새들이 있는데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면 장님이 되기 때문에 매주일 쉬게 하므로써 건강하게 더욱 능률적으로 일한다고 한다.

안식일을 계속하여 어기면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으로 쇠약해지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는 손님, 아랫사람, 종업원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육체노동을 쉬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②주일에는 오락을 금해야 한다

오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기쁨을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주일에 오락을 금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주일에 T.V. 보는 일, 주간지 보기, 영화관람, 등산, 바둑, 장기, 운동경기 관람등은 다 쉬어야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서 「오락을 금할 것」을 명령하였다. 왜냐하면 주일날의 오락활동은 예배와 경건생활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배와 경건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어린이들의 자연스런 장난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가벼운 산책까지 금하신 것은 아닌 줄 안다.

③주일에는 상업활동을 쉬게해야 한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자는 주일날 「상업행위」(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삼가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물건을 파는 신자는 하나님보다 돈벌이에 더 치중하다 보니,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물건을 사는 행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활동을

하게 만드니, 주일성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한국 양과업계에 지금 예상처럼 나타나 크게 번창하고 있는 「가나안 제과」의 창설자인 모성도는 계속 사업에 실패하였는데,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주일성수」를 엄수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다. 물론 타국이나 타향을 여행할 경우 식사문제는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④ 주일날은 여행을 삼가해야 한다

물론 초상이나, 기타 화제등의 긴급한 일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일이나, 전도활동을 위한 교통수단 이용은 부득이 하겠으나, 고의적인 여행이나 오락이나 관광을 위한 여행은 주일날 절대 삼가해야 될 줄 믿는다.

(2) 주일성수법(主日聖守法)

①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6일간(월~토)의 우리의 모든 활동에 최선의 정성과 노력과 힘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4계명에서 「옛날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출 20:11)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일간 최선을 다해 생활하지 못한 성도는 이미 주일성수를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안식」이란 말이 나태 즉 게으름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신앙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일날 성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 공중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안식을 누리야 한다(마 11:28, 롬 8:1~2)

즉 기도, 찬송, 말씀, 축도,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6일간의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과 말씀에 관한 신령한 관심으로 우리의 정신적 충점을 바꾸어야 한다.

영국의 어떤 지방의 말들이 다른 지방의 말들보다 빨리 죽어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니는 길에 너무 평평하여 굴곡과 변화가 없으므로 그 말들이 항상 사용하는 근육만 사용하므로 빨리 노쇠하여 다른 지방의 말보다 빨리 죽었음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 이웃에게 봉사하므로 적극적으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

주일에는 가난한 자의 구제활동,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전도활동, 병자들의 심방등 주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시듯, 선한 일에 우리의 정성과 힘을 쏟아야 적극적 주일성수를 할 수 있다.

㉢ 가정에서 안식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리 어머니가 토요일날 맛있는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 두었다가 주일 오후로 저녁때에 「가족기도회」 「성경읽기대회」 「성경암송대회」 「경전서적읽기」 「성경토론회」 등이나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하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함이 좋겠다. 그외 「가족회」나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의 일대 일의 「대화시간」을 가정으로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가정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임을 자녀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할 것이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일은 주일에도 할 수 있다.

예를들면 ㉠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이나 전쟁 발발시 방어작전등 ㉡ 또 위급한 환자의 병원수송, 치료등은 가능하며 ㉢ 성전안에서 구약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던 일과 같은 직분들의 수고 즉 교역자의 활동이나 교회 직분자들의 예배 및 전도 봉사활동에 수종드는 일, 또 사찰이나 교회 운전기사들이 수고하는 일은 주일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모든 긴급한 일들은 장로교 「헌법의 예배모범」이나,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제 221장」와 「소요리 문답」(제 57문에서 제 62문)에도 허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 주일성수의 중요성과 그 축복

(1) 주일성수의 중요성

① 안식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정 선포하셨고, 주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과 함께 지키신 성일이다(요 20:19~29).

그러므로 주일은 창조의 완성 기념일인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받은 구속의 완성 기념일인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다.

② 또 주일은 기독교 생명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즉 매 주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며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전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주의 일을 협력 수행할 수 있는 「기독교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주일성도는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주일 집회와 함께 탄생했음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집회 없이는 교회가 살아 남을 수 없고 또 교회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 남을 수 없다. 그래서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만일 당신이 기독교를 없애고 싶다면, 주일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되오”라고 한 말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③ 안식일 성수를 못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임하였음을 드러미아는 증언하고

있다(느 13 : 18). 또 18세기 프랑스 대혁명후 프랑스는 무신론자들에 의하여 생산고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일성수를 폐지하고 10일마다 휴일을 주었더니, 오히려 생산고는 줄고 사고율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위대한 프랑스 시대」는 그 막을 내리고 말았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주일 성수의 축복

①안식일이나 주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룩히 구별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축복의 날」로 성도에게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제4계명에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하셨다(출 20 : 11).

②또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므로 새힘을 얻는 축복의 날인 것이다(행 2 : 41~47, 사 40 : 31).

③그리고 주일성수를 잘하면 우리의 영육이 주의 은혜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사 58 : 13~14, 신 28 : 1~14).

III 결 론

지상교회에서의 주일성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의 안식의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부터 주일(主日)을 거룩히 지키므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맛보아 알며 잘 연습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 마다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육의 축복을 폭포수 같이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만일 안식일(주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아브람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이니라.”(이사야 58 : 13~14)

—아멘 할렐루야—

□ 그루터기

악(惡)이란

초등부 예배시간.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가운데 악(惡)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자,

초등1반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일어섰다.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하는 것 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라는 얘기이다.

“응응! 왜?”

“성경말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하는 것이 선(善)이니까요”

“어허허...정말!”

▪ 창세기 1 : 31

〈편집실〉

『월간 충현 정정란』

지난 7.8월호 잘못 편집 또는 오식(誤植)된 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p. 5 우상5 전도합시다 → 전도합니다

p. 13 우하6 구혼 → 구원

우하12 짓을 → 짓을

p. 24 좌상1~8행 삭제(이사야 강해 중 중복된 내용)

p. 33 우상10 벗겨 → 벗겨

p. 34 좌상28 ~라” → ~라”

p. 34 우상5 목화사역 → 목회사역

p. 37 좌상22 화합 → 회합

p. 40 우상8 적연과 → 적연와(빨간기와)

p. 47 좌상15 열렸엇열렸엇다 → 열렸엇다

p. 48 우상8 갑자기 → 갑자기

표3(p.51) 사진설명① 교역자 → 교역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의 내용

<이사야 6:1~4>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3)

이사야 선지자가 옷시야 왕이 죽
던 해에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면
서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 보게 된 계시가 바로 이사야 6
장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계시를
보았습니까

1.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
으셨는데...」(사 1:1)

이사야가 영의 눈이 열려 본즉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
으셨읍니다.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 좌정하
셨다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높이신 권위에 비
교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
다

지극히 높은 곳에 그의 권세와
그의 존귀를 비교할 자가 없는 분
이라는 말입니다.

(2) 세상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
이 다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진 자는 암만 발버
둥을 쳐도 구멍으로 좁다란 하늘만

보이고 사방은 꼭 막혔읍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일분 있
다가 될 앞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은 십리
밖에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느 구석이든지 다
살피십니다. 임금은 백성의 가정
을 잘 살필 수 있어야 임금의 노릇
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
가 한이 없으시고 지극히 세밀하
십니다.

(3) 죄와 상관이 없으신다는 뜻
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와 아
무 상관이 없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가지
고 마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
니십니다.

(4) 아무도 침노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 높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은 아무도 비교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침범할 자가 없다는 말
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
가 싸워 볼 자가 없습니다.

2.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
였고」(사 1:1)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
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합니다. 그러면 이 옷자락이 성전
에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
까?

(1)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나
타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납니
까? 주의 백성이 찬송하는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하나
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
다.

(2) 인자하신 보호로 함께 해 주
신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
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
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옷
자락에 우리를 숨겨 주시고, 옷자
락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어 인자하
옵시고 부드러운 보호를 주 앞에
나온 자들에게 임혀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너희가 비록 더럽고 못되었지
만 회개하는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나를 찾아 나온 너희를
내가 모른척 하겠느냐?’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신 보좌에
올라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성
전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임하시
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습니다.

(3) 성전에서 함부로 덤비면 하
나님의 옷자락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
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
자하옵신 혜택이 충만한 곳에서 우
리가 함부로 날뛰고 못된 말과 못
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
독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
한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더러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에 여호와가 계시니 온 천하는 마땅히 그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읍니까?

3. 하나님을 모셔 선 스랍들을 보았읍니다

「스랍들은 모셔 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사 6:2)

◎스랍은 어떤 천사입니까

(1) 스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사입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 깨끗하다: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 깨끗하게 합니다.
- 뜨겁다: 열심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 불꽃같이 죄악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스랍 천사는 불꽃같이 열심이 있고 불꽃같이 죄악을 심판해 버리고 불꽃같이 광명한 천사들입니다.

(2) 여섯 날개를 가졌읍니다

스랍 천사는 날개가 여섯인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꺼떡거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간 가운데 기도 좀 했다고, 성경

좀 봤다고, 연보 몇 분 했다고 교만하여 교회에서 꺼떡거리면 하나님 앞에 매 맞을까 겁이 납니다.

② 두 날개로 발을 가리움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천사의 발에 무엇이 묻어서가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발이지만 발을 가리움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③ 두 날개로 날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만 하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4. 하나님을 향해 서로 찬화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서로 찬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1:3)

스랍 천사들이 하는 일을 찬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찬화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곡조를 맞춰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찬화하여 부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했습니다.

우리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곡조를 맞추어서 남자는 남자 목소리로 여자는 여자 목소리로 4부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성대와 소리, 가진 재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정성어린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 거룩 거룩 거룩 영광 가득하나
죄인들은 어두워서 볼 수 없겠네

유대 사람들은 저희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사람에게나 다 미쳐있고 지극히 작은 꽃 한 송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5. 천사의 찬미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같이 찬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한지라』(사 1:4)

(1) 천사들의 찬미의 권위와 힘을 말합니다

문지방의 터란 문을 세워놓은 그 밑의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문은 움직일 수 있어도 문지방의 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장 든든한 곳이 문지방의 터인데 이 문지방의 터가 움직인다는 말은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의 힘이 얼마나 굉장한지 보여줍니다. 문만이 아니라 문지방의 터까지 움직이도록 찬미를 부릅니다. 천사들의 권위와 실력, 찬미의 힘이 문지방의 터를 움직입니다.

(2) 천사들의 찬미에 문지방의 터까지 감동하여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만물이 통일이 안되고 강한자가 약한 자를 천대하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물이 통일되는데, 사랑으로 통일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만 통일이 됩니다.

천사들이 찬화할 때에 문지방 터까지 움직여 감동받고 찬미를 부르

며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인들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인들의 입이 막혀서 찬미부르지 못합니다.

6. 연기가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다는 것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내리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실 자를 처치하시기 위하여 구름으로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파오를 범하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 그러나 그 파오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책망하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용납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틀스토이>

□ 교사일기

○월 ○○일 주일아침

똑순이가 나를 만나자 말자, 이마를 찌뿌린 채로
“선생님, 저— 기분이 나빠있어요”
“왜에—”

다소 곳이 붙었더니, 이야기 한다.

“우리 학교, 같은 반 아이가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이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주장했는데 그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아하!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기분이 매우 나빴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에게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 조상을 창경원 우리 안에 가둬 놓는 것은 잘못이니까, 원숭이에게 말도 가르쳐 주고 옷 입는 것도 사람답게 사는 것도 그리고 공부도 시켜서 사람이 되나 안되나 시험해 보라고 그러렴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주장하니 그 아이에게 ‘너는 원숭이 자녀이고, 나는 사람의 자녀이다’라고 한 마디 해주면 되지 않겠니?”

똑순이는 눈을 반짝인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선생님, 고마워요”

하며 뛰어간다.

다음 주에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올까?

○월 ○○일 주일아침

오늘도 똑순이는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 원숭이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이야기해서 그 아이들이 꿈쩍 못하고 내가 이겼는데요. 이번에는 그 애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했지만 그 애들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서 속상했어요”

분하다는 듯이 상기된 얼굴로 내 말을 기다렸다.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좋은 예증을 찾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 해주렴.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땅에서 썩어서 죽으면 싹이 나오는데, 그 콩의 싹은 죽은 것이니 산 것이니?’라고 물어봐. 물론 살았다고 할 거야. 그러면 땅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았냐고 물어봐”

똑순이는 다시 싱글벙글 기뻐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설명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콩 이야기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 기도해야 겠다. 그 아이들의 심령에 부활의 사실이 믿어 지도록.

신앙변증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Oh, To be Like Thee>

- 새 327, 합 318 -

내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같이
내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보고 배우며 자란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는다. 외형도 부모를 닮고, 성격도 · 재주도 · 심지어 유전적인 병까지도 닮는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

이 찬송의 작시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의 소원이요 기도라고 했다(1절).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슬픈 자 위로해 주시며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

방황하는 죄인 찾아 구하시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2절).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보화까지도 기꺼이 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며 특히 바라는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전에는 함부로 말하던 악한 말들이 경건한 말로 바뀌어지며 교만하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일어난다.

또한, 겸손하시게 기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의 멸시도 비난도 참으시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3절).

또한 모든 일을 앞에 놓고

이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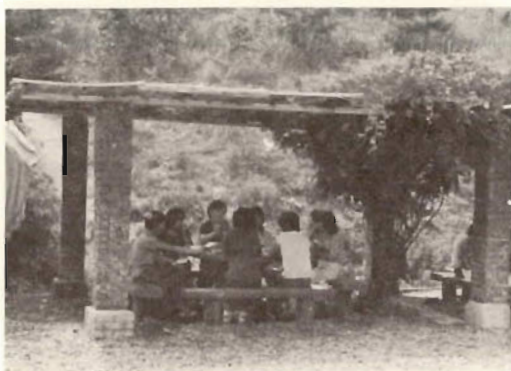
또한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달아가는 참다운 성도들이 되어
저기

원해야 한다

이 찬송의 작시자 토마스 오비다아 키숍(1866~1960 Thomas Obidah Chisholm)은 1866. 7. 29 미국 캔터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으로 인해 시골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으나 독학으로 공부하여 16세에는 소학교 교사가 되었고 21세에는 고향의 주간지의 부편집자가 되었다. 그가 27세 되던 해, 그의 고향에서 열린 부흥집회를 취재하러 나갔다가 요한복음 3장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곧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200여편의 많은 찬송시를 썼다. 이 찬송은 키숍의 찬송시를 윌리엄 커크패트릭(William J. Kirkpatrick)교수가 찬송곡으로 작곡하였다.

나의 여름 휴가



“앞에는 내가 흐르고 산이 있으며,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의 침묵이 남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밤이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자연에 취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을까 두려우나)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휴가를 앞둔 한달 간의 기도 제목이었다. 자연 속에서 쉬고 싶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휴식이란 무엇인가? 성경 연구원 계단에 놓여 있는 패튜니아와 사루비아 꽃들을 보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의 평안함을 맛보지 않는가. 모두가 가버린 어느 날 오후 허허로운 천막 밑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시 4:8). 평생토록 약속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던가. 한 겨울 나무가지의 봄을 기다리는 순, 잠자는 강아지, 아기들은 생명의 환희로 내 곁에 와 머무르지 않는가? 도서실 창 밖의 오동나무 잎새의 반짝거림, 정말 대수롭지 않은 풀꽃을 보면서 어릴 적 선생님께 들은 에덴 동산, 각색 보석, 열두 진주문, 수정같이 환한 대로를 야곱인들 나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였을까 보냐. 그럼에도 집을 떠나 오던 날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가! 기도원 사찰집사님께서 안내해 주신 목사관 옆의 기도실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방안 듯 했다. 여기서는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끈은 없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노동 후의 깊은 침묵과도 같은 휴식이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 버리고, 앞에 일은 맡기고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는 창조의 기쁨,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 그로 인해 베풀어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향연을 즐겼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발버둥하지도 않았

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조화를 이루는 데 없이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었다.

아침 일찍 거미가 꿈무늬에서 실을 얻어 내고 있었다. 길을 잘못 든 개구리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한참 범석을 떨었다. 개미가 서둘러 대며 밤새 불멸에 사그러진 먹이를 날랐다. 도마뱀이 방문 앞으로 다가오다 내가 놀라는 소리에 제풀에 도망갔다. 정진의 시간은 온 천지에 주님과 나만을 남겨 놓았다. 보고 싶은 주님! 얼마나 떨리는 만남과 사랑을 나눔인가! 헛된 떨림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리는 고백이다. 해 뜨기 전, 개울로 가는 길에 논바닥에 길게 자란 벼는 농부의 거친 손 마다를 연상케 했다. 그들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다. 나는 무엇인가 홀리 듯, 손은 양심을 거부하고, 어느 새 꽃을 따 모으고 있었다. 도라지, 흰 소국, 황국, 호박꽃, 산수유, 버들강아지, 까마중, 오랑캐꽃, 달맞이꽃... 꽃다발을 만들고 싶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엮어 주님 발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오랫동안의 비애와 고뇌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그것이 아름다운 연단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얼마나 인색하고 초라한 것인지. 영혼의 밀바다에 얹혀있어 어리게 반주되는 사랑, 슬픔, 웅어리진 신음을 기쁨으로 떠 띄워 꽃송이마다 새 노래로 찬송케 하리라.

낮에는 피꼬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파숫군이 되었다. 책과 씨름하다 더위에 지치면 땀으로 나왔다. 나의 시간이 주님 앞에 맡기운 바 되었기에 자갈밭 운동장을 밟는 발소리도 부드럽다. 구름이 흘러 간다. 쉬어 갈 듯 하면서 흘러 간다. 구름이 자유롭듯 내 영혼이 자유롭다. 호흡한다는 것! 구원받은 생명의 풍성함! 기도굴에서는 대낮에도 기도소리가 들려 온다. 나무 그늘 밑도 바람 한 점 없어 땀으로 온 몸이 끈적거렸지만 그것도 싫지 않았다. 병약한 육체인들 땀을 흘릴 수 있으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즐거움과 환희를 맛보지 못하는 아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궁핍한 자의 탄식, 가련한 자의 눈물, 권세 있는 자의 교만도, 하늘가 뿌르름 밑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비굴함과 교만에 사로잡혀 지혜로운 뱀인 양 처세하는 어리석음일까 보냐. 어린 시절 피어 나는 요셉의 꿈을 모르고, 청년의 때, 자

신이 그어 놓은 한계선에 얽매어 먼 훗날의 일을
오늘의 일인 양 깊은 시름으로 물들이는 아픔이여!
늦가을 주신 탈란트대로 거두어 들이는 수확의 기
쁨을 후회와 번민으로 맛보지 못한 채 지나친 결
손이 자신을 자학으로 자맥질함이여! 폴 토우르니
에가 말하였 듯, 인생을 4계절에 비유한다면 계절
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만끽하지 못한 채
건너 뛰고 놓쳐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
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 버리면 산다는 것이
곧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휴식이 아닐
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
나님의 선물이거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메마르
고 거칠어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기쁨조차
누릴 수 없는가?

밤 하늘에 별빛이 유난히 맑다. 불빛따라 불나비
와 날벌레들이 밤 안으로 날라 든다. 풀잎 속에 잠
못 이루는 벌레들은 “한 여름 밤의 꿈”을 연주한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교
회 도서관 앞 어린이 풀장에서 들리던 어린이의 함
성을 연상케 하여 끌리듯 나아가 보면 달빛 속에
밤 이슬이 내리고, 거기 뱀엘의 하나님이 나를 부
르신다.

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팔인가!
그 자리에 주저 앉아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 발 밑
부서지는 흙이 눈물로 적셔 진다. 사랑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 내 영혼이 유리함으로 기억도 없
이 소멸시켜 버린 기도의 재목을 회복 시키소서. 오
늘 밤에는 꿈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밤
이 다하도록 이 밤을 지키소서. 밤이 지나고 천국
의 새벽이 나를 깨울 때 광명한 새벽별이여 나를
이끄시어 수정 같이 맑은 생명의 강가에서 영원
히 안식하게 하소서. 오늘의 이 안식이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되리이다.

정 인선

(직장청소본부 교사)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충현은 성도 여러분의 교제의 광장이며 기쁜 소리를
나누는 벗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받
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충현은 문을 넓게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글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논단, 제언, 간증 및 수상 등
과

2.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시, 수필, 콩트, 일기 그리고 미
담가화 등입니다.

3. 혹 원고가 많이 밀려서 늦게 설리는 수도 있고, 편집상
선별되어 실리는 수도 있어오니, 이 점은 양지하시고 주 안에
서 많은 참여와 권고 바랍니다.

원고마감 : 매달 15일 이내

원고매수 : 200자 15매 이내

보 낼 곳 : 월간충현편집실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
그대의 행복의 샘
이 신앙에서 그대는
안식과 힘과 지혜를 발견하라
폭력과 무덤이 동요할찌라도
그대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페스탈로찌—

이 죄인 받으소서

—소년원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김 병규 (충등부 교사)

12세~20세까지의 소년들이 원치 않는 푸른제복을 입고 두눈을 번뜩이며 교회 안에 가득히 앉아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첫 집회를 시작할 때 200여명의 소년들은 한결 같이 미심쩍다는 눈초리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사회로부터 추방 당한 소위 문제아들이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이새신자부 교사로 계시는 박 양덕님께서 이곳 소년원에 전도를 다니신지 2년만에 여름성경학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무렵에는, 한푼의 여유조차 없었지만 뜻있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우리가 소년원에 간 때는 더위도 한풀 꺾여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8월 22~26일이었다. 전체 15명의 교사 중에서 장로님 한분과 전도사님 세분, 집사님 두분이 계셨다. 하루 세번씩 집회를 가졌다.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소년들의 모습도 처음 태도와는 달리 매우 진지해져 갔다. 교사들은 아침을 금식해 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아 헌신 하였다.

이미 큰 잔치가 시작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충분한데, 한창 식욕이 왕성한 소년들에게 풍족해야 할 간식이 부족하여 걱정이 되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걱정이 태산같은데, 마침 밖에서 손님들이 오셨다는 전갈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상도동에 있는 교회의 여전도회를 통해서 간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뿐이었다.

그분들은 떡 10박스, 사과 4박스, 공책 300권을 가지고 오셔서 소년들에게 나눠주시고, 오후 집회 때는 처음 시간부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셨다.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가뉘두십니까?'

항상 오전 집회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 각방에 흩어져서 분반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한 구절씩 공부해 가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굳게 의지하면서 열심을 낸다.

저녁 집회 때는 모두 차가운 시멘트 바닥 복도에 꿇어앉아서 애타게 주님을 찾으며 매달렸다.



'탕자처럼 방황하던 이 죄인 주님 앞에 옵니다. 나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피어오르고 우렁찬 찬양의 소리만이 두꺼운 쇠창살을 뚫고 나갔다. 집회를 마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썼는데 어느새 백성이 재에 앉아서 회개했듯이 그들은 지면을 통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그래도 부모가 있고 가정성이 있는 소년들은 돌아갈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부모도 집도 없는 소년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인가?

우리 일행이 돌아오던 날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아쉬워 하며 콧등을 쓸룩거리리는 그들의 모습을 뒤로 한채 떠나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는다.

교회 편지함에는 이들의 편지가 날마다 수북히 쌓이게 되었고 검정고시 합격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더불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년원 원장님께서 적극 후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물론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조국아 내 뼈를 묻어다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약술을 하면 참으로 이 책 속에 담긴 한 인간의 뼈저린 아픔이나 의지나 그 간절한 염원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1900년생이신 이 응 집 사님이 1927년 2월 부터 1979년 조국으로 귀환하시기 까지 중공 땅에서 보낸 오십여년의 긴 세월을 역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체험전기이면서도 가슴을 에이는 인간의 신음과 끓어오르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지한 하나의 장편소설이다.

너무 파란만장한 생애는 살아있는 민족의 아픔을 너무 늘어 버린 세월의 아픔 속에서 정체해 한다.

일본 법정대 정법학과를 졸업한 젊은 지식인이 일본군 상등병 따귀 하나를 때린 일로 시작된 만주에서의 설움과 참상은 뼈만이라도 조국에 묻겠다는 의지와 함께 80세 노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군, 로스계(소련군), 중앙군(중국군), 팔로군(중공군), 홍위병들의 약탈, 살상, 겁탈, 방화 등의 시류속에서 격어야 했던 인간으로서의 아픔과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하는 책이다.

그리고 조국과 평화와 자유가 왜 필요한지를,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간의식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편집실〉

초국판/70미색모조/334면/3,500원

여름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요새는 자주 비가 옵니다.
또 몹시 더웁습니다.
밖에 나가 놀지 못해도
갑갑하다고 짜증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동생들하고
재미있게 놀게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도 읽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영택 지음 「어린이 기도본」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재주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며
나는 둘러본다.

그리고 약간은 부러워 하며 생각해 본다.
나의 선물은 무엇일까 하고
나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 자체

그것은 끓어오르는 항상 움직이는 힘
그것이 우리의 속을 휘저어 놓는다.

흐르는 물살처럼 방향과 표현을 찾는다
시냇물이 뚝에 의해 방향잡아 가듯이
생명은 환경따라 형성되어 나아간다

그러나 한번도 환경에 갇히는 일 없이
움직이고, 형태를 변하며,
머리 숙여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물튀기며 장애물을 넘어도 간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선물

그것은 생명!

만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의 시냇물이 방향잡아졌다면
나는 귀중한 선물을 두번 받은 셈이다

〈고든과 그래디스 더프리스집

—선물—중에서〉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 만수 선교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3 선교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스리랑카, 애굽,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등 5개국의 8개 지역을 답사함.

—기도제목—

- (1) 건축 중인 개척지를 위하여
- (2) 현지 교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애굽—이 준교 선교사

(1) 카이로 한인교회에서 6월 정기기도회및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심.

(2) 6월 26일 엘 아스파프 복음주의 교회의 주일 저녁예배에 참석, 설교하시고 성찬예식을 집례 하심.

(3) 7월 15일 1979년에 개척한 엘 탈비아교회를 방문, 여러가지의 교회 현황을 돌아보았는데 현재 모이는 교인수는 40여명 정도로 교회당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실정임.

—기도제목—

- (1) 카이로 한인 사회와 한인 교회의 부흥을 위해
- (2) 애굽 현지인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현지 사역자를 통한 개척교회 사업을 위해
- (3) 현재 교회당을 건축하지 못하고 40여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엘 탈비아 교회를 위해

○벨지움—김 성완 선교사

장 정일 목사님, 한 경일 장로님등 3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김 주경 전도사가 인도하는 성지순례단을 맞아 브르셀 한인교회에서 7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담화하심.

—기도제목—

- (1) 한국에서 오는 기술 연수자 수십명이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되도록

- (2) 보다 더 넓은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서독—육 호기 선교사

(1) 7월 30일 한 경일 장로님을 단장으로 하는 성지순례단 30여명을 접견 환담하고 선교 업무를 협의함.

(2) 8월 1일에서 5일까지 유럽 교역자 주최로 연합 수양회(회장:육 호기 선교사)를 은혜 중에 마침.

—기도제목—

- (1) 비스바덴 한인교회당 구입을 위해
- (2) 비스바덴을 비롯한 세 교회의 부흥을 위해

○칠레—유 재일 선교사

칠레 어린이 주일학교 젊은이 지도에 찬송가가 없어 불편을 느끼던 중 한인교회 복사기를 이용하여 할렐루야 찬송가 220권을 발행함.

—기도제목—

- (1) 선교사역에 동역할 원주민 선교사를 위해
- (2) 가족의 건강및 원주민 선교사역을 위해

○파라과이—김 재창 선교사

(1) 6월 1일에 북한선교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인도하심.

(2) 6월 12일 유초등부 어린이 북한선교 헌신예배에 설교하심.

(3) 6월 말에는 새로운 대지 위에 교육관을 증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4) 7월 21, 22일 양일간 중등부 수양회를 인도함.

—기도제목—

- (1)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일본—유 병세 선교사

(1) 포하교회와 합동예배를 드렸는데 이 권사님께서 충현교회 여전도회의 부흥을 간증하심.

(2) 이 권사님께서 광미교회 부인 성경공부반을 인도하심.

—기도제목—

- (1) 일본 선교의 점진적인 발전과 확장을 위해
- (2) 일본인들의 마음의 문이 넓게 열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1) 잠무—카시밀과 히마찰주에서 일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한 대회를 가짐. 국제 선명회 부회장이신 사무엘 최 카말리슨 박사가 인도한 이 대회에 약 150명이 참석함. 또한 대회 기념물을 인쇄했는데 자료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심.

(2) 7월 12일~21일까지 국제순회전도자대회가 암스텔담(화란)에서 열림. 이곳에서 아시아의 학생들을 포함한 한국의 몇몇 학생을 만나볼 수 있었다.

—기도제목—

- (1) 전도받은 사람들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 (2) 이삼기온이 심했던 카길지역의 사역을 위해
- (3) 선교사님의 가족, 특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아들 안드레아스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미국

1. 라성충현교회

(1) 6월에는 새신자를 위한 특별 환영회를 실시함.

(2) 설교 카세트 복사기를 구입하여 주일 오전, 성경공부, 주일대예배, 주일저녁예배, 수요성경공부등을 녹음하여 전도용으로 보급하고 있음.

(3) 수족 중인 정 상우 목사님께서 도미하시어 라성 충현교회에 부임하시기까지 윤 형철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임명하고 김 영휘 목사님을 부목사로 임명함.

—기도제목—

- (1) 84년에 안수집사및 장로님 안수식을 거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기도를 바랍니다
- (2) 예배처소 구입을 위해

(3) 정 상우 목사님의 수속을 위해

(4)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윤 형철 목사

6월 10일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으심.

3. 김 영휘 목사

9월 새학기부터는 William International 선교대학으로 등록하여 공부할 예정.

4. 이 승근 목사

청년부 수양회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앞으로 가질 예정임.

○본부소식

1) 장 정일 목사, 한 경일 장로등 3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김 주경 전도사가 인도하는 선교지 답사및 성지순례단이 애급, 뽕기에, 서독등 선교지를 포함한 10개국을 순방하고 8월 6일 오후 8시 비행기로 귀국하심.

2) 성 주진 전도사님께서 영국 글라스고 대학에 유학이 확정되어 8월 9일 오후 4시 30분 비행기로 출국하심.

3) 본회 회장이신 최 석주 장로님은 미국 선교지 현황및 업무 협의를 마치고 8월 19일 귀국.

4) 충현세계선교회 주관 하에 성지순례및 선교지 답사후 8월 26일 하오 5시 순례단 전원과 세계선교회 실행위원들과 함께 평가회를 가짐.

《공동 기도제목》

- 1) 모든 선교사님 내외분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 2) 모든 선교사님의 능력과 결실있는 선교 사역이 되길 위하여
- 3) 선교지 교회들의 부흥과 그곳 교우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교회 소식



□ 교회소식

제3회<교회 성장세미나>(6월23일~24일)의 일차적 결실로써, 당회는(8월5일)교회내의 새부서와 보직을 신설하고, 교회조직의 일부를 개편하였다.

1. 신설된 부서와 보직

1) 기획조정실

실장: 최석주 장로

부실장: 정은표 전도사

기획위원: 박승준 장로

김광신 장로

2) 수석 부목사(행정수석 부목사)

정상우 목사

2. 명칭변경

1) 총무국→사무국

사무국장에 이태규 장로

3. 기타

이외에 건의된 신설부서나 통합·확장 또는 명칭및 위치 변경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안이 마련된 후 내년(84년)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확장된 내용에 대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

가) 수석부목사

각 위원회에 대한 당회의 행정지도력을 강화하고 당회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필토록 한다.

나) 기획조정실

당회가 위임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기획, 연구, 검토하여 종합 조정하는 당회와 각 위원회간의 교량적역활을 한다. 즉, 당회에서 결정된 모든 정책사항이 보다 구체화하여 일선기관에 전달되도록하며 각 일선기관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당회가 교회실행과목과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정확, 신속하게 결정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 사무국

그 조직과 기능을 새성전 실정에 적합토록 전면 개편하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운영을 최대한 능률화 및 기동화한다.

□ 무료의료 전도



본 교회 의료 전도팀은, 지난 8월7일 1부 예배후에 경기도 여주군에 소재한 금현교회(장병기 전도사 시무)에 가서, 무료 의료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 날 전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팀은

홍 중섭 장로: 피부과 의사

우 기전 장로: 한 의사

엄 필성 장로: 치과 의사

조 인순 권사: 성동보건소장

박 남수 집사: 치과 의사

조 인제 집사: 산부인과 의사

김 종희 집사: 정형외과 의사

이 갑재 집사: 약사

임 기채 집사: 약사

정 인선 선생: 약사

이 해정 선생: 약사

김 정미 선생: 한양대 수술실 간호원

마 경순 선생: 간호원

그리고 최우진(서울대 의대재학)군과 최영철(연세대 의대재학)군이 보조하였다.

이 외에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은

한 명옥 장로(남전도회 중경회장), 박치민 장로, 김원선 장로, 최대원 장로, 김진만 권사, 이병옥 집사(직장전도회 의료부장), 이원식 집사(운전기사), 홍혜선 선생 등 모두 23명.

□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1. 극동방송국 주최 성가합창제(제8회)

일시: 1983. 10. 29(토)

3시 7시(2회)

출연교회들: 충현교회, 아현(감), 소망, 순복음중앙, 한국중앙, 아현(성), 여의도(침), 영락교회 등 8개교회

□ 교회 이전계획

9월 첫주에 새성전에서 예배드리려던 계획이 공사관계로 잠정적으로 무기한이 되고 기념행사는 안하기로 하였다.

□ 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본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들의 자녀에게 지급되던 교육보조금을 이번 학기부터는 장학금으로 대학10명, 신학연구원13명, 고등학생9명, 중학생16명, 전원48명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정 상우 목사

본 교회 행정수석 부목사로 정 상우 목사님께서 9월 1일 부임하셨다. 앞으로 당회장 목사님을 보필하셔서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교회행정이 되도록 수고하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북한선교회

1. 북한선교회는 지난 7월25~30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훈련원에서 1,460명의 대원이 참석하여 훈련을 받았다.

2. 8월 15~19일 충현기도원에서 [8.15 해방 기념 구국 성회]를 열었다.

저녁집회 강사에는 김창인 목사, 이천석 목사, 이호문 목사, 그리고 낮집회에는 조준상 목사

(기도원 지도)가 「성막론」공부를 인도하였다.

3. 8월 13일 여의도에서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에서 25명이 전도지와 우유·박카스 그리고 냉수를 준비하여 봉사와 함께 전도도 하였다.

□ 인사이동

① 임명

유치부 : 임선자(여) 임시교사
한용관(남) 임시교사
이애란(여) 임시교사
유년부 : 정경애(여) 정교사
김복자(여) 임시교사
어새부 : 송재일(남) 임시교사
중등부 : 이윤경(여) 임시교사
장새부 : 김경희(여) 정교사
소망부 : 정대부(남) 임시교사
하춘자(여) 임시교사
이혜숙(여) 임시교사
권영학(남) 임시교사

② 퇴임

영아부 : 송옥숙(여) 정교사
유치부 : 김혜순(여) 임시교사
유년부 : 안단희(여) 정교사
정현정(여) 정교사
초등부 : 김준호(남) 임시교사
김종곤(남) 임시교사
김영주(남) 임시교사
최기봉(남) 임시교사
정미라(여) 임시교사
안희영(여) 임시교사
중등부 : 김동균(남) 정교사
유원열(남) 정교사

□ 부지도전임

김장근(남) 세례부 부지도에서
성경연구원 부지도
김성주(남) 청년부 부지도에서
세례부 부지도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토요일제외)

• 매주 수요일배후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

• 차량운행코스 : 충현교회→신사동국민은행앞→영동시장 (대한투신)→삼일자동차(새성전앞)→잠실네거리→송파→성남모란시장(시외버스정류장)→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 광주행 3번을 타고(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13472-2-4425

130-12

□ 교육위원회

그간 각부의 여름행사로 말미암아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었다. 계절학교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시날짜 순)

주교 여름행사 실시 결과

참가인원 (명)

부별	주 제	기 간	장 소	강 사	교사	학생	계	%
어새부	하나님 나라 우리를 나라	88. 7. 18~21	충현교회 동관 3층	이 진 희	30	66	96	60.8
유년부	배우고 따를 성경 말씀	7. 18~21	충현교회 유년·유치부실	이 성 은	80	380	460	93.5
초등부	성경의 능력	7. 18~21	충현교회 본당	정 연 희	66	419	485	88.0
대학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7. 18~21	충현기도원	성 주 진 옥 허 충 욱	14	101	115	68.5
청년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7. 20~23	충현기도원	허 충 욱 김 수 성	9	169	178	84.0
중등부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7. 25~28	충현기도원	최 봉 호	55	320	375	94.9
장년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7. 29~30	충현기도원	이 성 근 윤 용 규	38	195	233	55.1
고등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8. 1~4	충현기도원	김 수 성 테리파이	35	198	233	78.2
선교부	제자를 삼으라	8. 2~6	충남·서산 파도교회	오치용·유국남	20	100	120	100.0
직청부	올바른 청지기 생활을 하자	8. 4~6	충현기도원	김 성 주 황 정 숙	25	71	96	75.6
유치부	꿀 보다 더 단 성경말씀	8. 15~17	충현교회 본당·유년·유치	정 연 희	70	350	420	100.0
소망부	소망중에 즐거워 하라	8. 22~23	충현기도원	조 영 길	31	203	234	101.3

새가정부 10. 2~3 예정

영아부 10. 10~12 예정

□ 성가6부 수양회 강사: 한석지 목사

지난 8월 4~6일 충현기도원에서 본 교회의 성가대 6부서 전대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명용 지휘자를 모시고 발성법 등도 배우며 수양회를 가졌다.



각종통계 1983. 8. 7(매월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총 세대수	
예배	I 부	195	345	540		
	II 부	429	1,104	1,533		
	III 부	403	753	1,156		
	IV 부	170	354	524		
	V 부	187	363	550		
배	주 일 저 녀	168	419	587	교 인	남 4,530
	삼 일 저 녀	138	307	445		여 6,311
주일학교	어린이새신자부	12	26	38		계 10,814
	영 아 부	213	189	402	세 레	남 2,454
	유 치 부	156	154	310		여 3,872
	유 년 부	177	156	333		계 6,326
	초 등 부	220	207	427	유 아	남 591
	중 등 부	180	170	350		여 491
	고 등 부	134	155	289		계 1,082
	대 학 부	64	88	152	학 습	남 298
	청 년 부	63	95	158		여 429
	장 새 부	55	126	181		계 727
	세 레 부	19	49	68	원 입	남 1,161
	장 년 부	39	275	314		여 1,519
	소 망 부	46	135	181		계 2,680
	직장청소년부	30	107	137	교 인	남 1,161
	선 교 부	방 학 중				여 1,519
	새 가 정부	22	36	58		계 2,680
합 계		3,120	5,613	8,733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8월의 교우동정

● 1지구

면목 7구역 조명숙	도선 1구역 김교동
상봉 구역 전경래	답십리3구역 권필기
자양2-2구역 김연근	성수2-1구역 최금자
면목 1구역 홍영자	성수2-1구역 이남근
장안A 구역 전원익	진주A 구역 신경자
장안 2구역 이규옥	금호2-1구역 윤성순
도선 1구역 김영환	금호3-1구역 김필수
면목 7구역 이상원	잠실5-1구역 김세영
면목 7구역 김영찬	구의 3구역 유민숙
성수1-1구역 강은희	성수3-2구역 최영선
잠실 2구역 우상덕	망우3-1구역 조연자
답십리3구역 이영숙	구의 8구역 조성숙
성수 2구역 송은정	행당 1구역 이기권

율지 7구역 조순희	북변 구역 고주영
낙원 구역 박금자	동문삼구역 김창진
홍제2-4구역 라연형	

● 4지구

아현 구역 강병두	화곡 6구역 송진국
도화 2구역 한순남	인현2-1구역 이정란
충무A 구역 김정민	오장 5구역 김인기
신사 3구역 고행자	당산 구역 김금숙
목정A 구역 김은희	화곡 2구역 최용남
삼성 2구역 김은희	논현 2구역 손목희
화곡 1구역 김은백	개포 1구역 이희전
도화 2구역 최영희	인현1-1구역 이정자

● 2지구

상계 3구역 이영재	상선 2구역 최현용
하월곡1, 2구역 김홍문	미아3-2구역 정동현
광희1-2구역 이재득	공릉 구역 김옥분
광희1-2구역 이정순	신당2-5구역 김금록
광희1-2구역 이여훈	미아 8구역 최성자
광희1-2구역 박경숙	신당4-3구역 유성인
은마 1구역 조명희	창동 1구역 김영심
은마 2구역 장건중	창동 1구역 박영실
하월곡1, 2구역 김광식	쌍림 2구역 이선자
신당1-3구역 김경래	

● 5지구

예방 구역 이정은	신림 3구역 전연희
사당 1구역 박충구	이태원3구역 석정민
실악A 구역 한영창	예장 구역 김미균
필동3-7구역 탁세표	필동 1구역 조순예
개봉 1구역 이경숙	필동2-2구역 김준숙
신림 4구역 심정순	반포 2구역 손무길
사당 1구역 조미숙	예장 구역 김은경
상도 1구역 오현주	안양 구역 정은선

결 혼

- 이화롭군(청운구역)과 이연희양(봉천구역) 7월 9일
- 설병동군(실관호집사, 전혜신권사 아들) 7월 9일

- 문미숙양(문원촌씨 이갑덕씨 딸) 7월 5일
- 백지선양(백기영씨 박영자집사 2녀) 7월 20일
- 김영대군(김창현집사 아들) 7월 25일
- 차미화양(논현구역 차병성씨 안금옥집사 딸) 7월 29일
- 이삼범군(용암구역) 8월 6일
- 기정수군(중동부교사)과 허영희양 8월 8일
- 이일구군(이동규장로 김영남권사 3남)과 김경순양 8월 11일

별 세

- 이탁섭씨(신보구역) 7월 5일
- 김윤찬씨(쌍림6구역 김만준권사 김춘지집사 모친) 7월 13일
- 전유갑권사(이태규장로 모친) 7월 16일
- 김한실집사(신림2구역 정한석씨 모친) 7월 19일
- 최해수씨(최동규 김명숙집사 부친) 7월 18일
- 김영환씨(신월2구역 고명진 김재춘씨 부친) 7월 24일
- 김성택집사(신사구역 백죽심권사 부친) 7월 28일
- 한청용씨(원곡이권철 시부) 8월 1일
- 모돈근씨(잠실5구역 모화자권철 부친) 8월 3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장년새신자부의 집회시간은 12시이며 장소는 새신자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9월의 행사

◇교회

2일/정기당회
9일/전체철야기도회

◇교육위원회

24일/주교 지도교역자 협의회
25일/교육위원회 월례회

◇전도위원회

1일/직장전도회 조찬기도회
및 월례회

◇자산관리위원회

18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9일/여전도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4일/정기제직회
11일/권사회 임원회
18일/권사회 월례회
25일/구역권찰회의

11일/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임원회

25일/전도위원회 월례회

◇재정위원회

4일/재정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11일/월간 충현 9월호 발행
25일/출판국 월례회

◇건축위원회

25일/건축위원회 월례회

편집후기

◆한낮 온도가 35~36℃ 오르는 대낮에 무더운 사무실에서 휴가조차 없이 지난 것을 생각해 본다.

목덜미와 등어리 그리고 팔 안쪽에 땀띠가 생겨서 짜증스럽고 괴로운 여름을 지나면서, 그래도 신앙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기 위한 땀흘림도 있었기에 위로를 삼았다.

◆책 한권 나온 것 보면, 평하기 쉽고, 금방 오자가 눈에 띄지만, 한 줄 글꼴을 붙잡고 며칠씩 고생하기도 하고, 더위 때문이 아니라 편집계획 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나온 책을 볼 때마다, 땀을 좀 더 흘렸어야 했다고 생각되곤 한다.

공부에도 정도가 없듯이, 만족할 만한 책자를 만드는 데도 정도가 없고, 또한 만족할 만한 완전한 책자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고 보면 한 방울 땀이 더 필요했을 뿐이다. 그렇잖아도 무덥기만 했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땀이 많이 나서 혼이 나기도 했지만.

◆각부 여름행사는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다. 중·고등학생 교복 및 두발 자율화로 질서의식조차 해이해진 그들과 함께 이번 수양회를 진행하던 교사들의 진통이 가장 큰,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르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한 4:36)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윤명식

편집위원 /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정은표

오태용 이형수

1983년 9월호

월간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9월호

제 11권 제8호

통권 113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9월 8일 인쇄

1983년 9월 10일 발행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 / 윤명식

주간 / 김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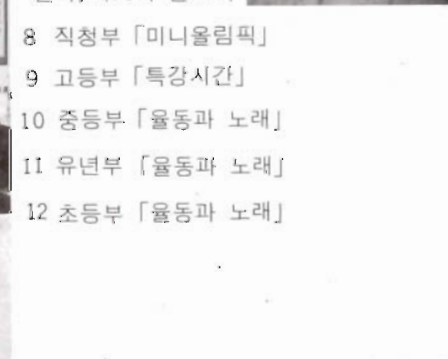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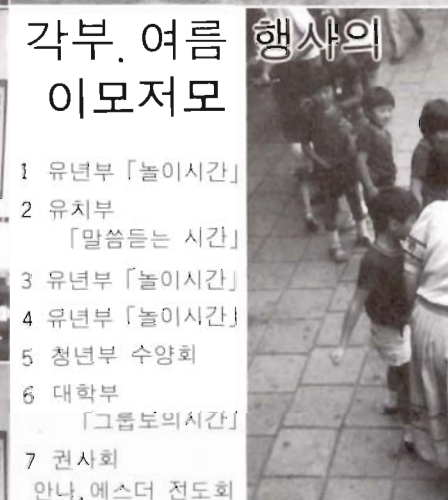
편집부장 / 문영화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 02-274-217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각부, 여름 행사의 이모저모

- 1 유년부 「놀이시간」
- 2 유치부 「말씀듣는 시간」
- 3 유년부 「놀이시간」
- 4 유년부 「놀이시간」
- 5 청년부 수양회
- 6 대학부 「그룹보의시간」
- 7 권사회
안나, 에스더 천도회
- 8 직청부 「미니올림픽」
- 9 고등부 「특강시간」
- 10 중등부 「율동과 노래」
- 11 유년부 「율동과 노래」
- 12 초등부 「율동과 노래」





1983. 8. 12.
장학금 수여식



1983. 7. 17
맥추감사절
2부 순서

충현교회새성전조감도
BIRD'S-EYE VIEW OF CHUNGHYEON CHURCH



1983. 8. 7.
의료전도팀
(금현교회에서)

1983. 8. 13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
에서 봉사하는
북한선교회 대원들

